

인삼은 보허(補虛)하고 감초는 화중(和中)하다

-한의학으로 본 인삼의 효능과 응용-

최호영 ·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

- 1. 개설
- 2. 한의학에서 인삼의 응용역사
 - (1) 한대
 - (2) 위진남북조시대
 - (3) 당대
 - (4) 송대
 - (5) 금원대
 - (6) 명대
 - (7) 청대
- 3. 인삼의 응용
 - (1) 탈증
 - (2) 비허증
 - (3) 폐허증
 - (4) 불장건망증
 - (5) 진휴증, 소갈증, 혈허증
 - (6) 양위증, 허손증
 - (7) 사질정허증

1.개설

인삼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인삼(Panax ginseng Meyer)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다. 인삼의 Panax ginseng Meyer라는 학명(學名)은 1843년 소련의 Meyer가 명명한 것이고 속명(屬名)인 Panax는 그리스 어원으로 '모든 것'이라는 뜻의 Pan과 '약으로 사용한다'는 뜻의 Axos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인삼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귀개(鬼蓋) 등의 이명(異名)이 있고 상품(上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뿌리의 형상이 사람과 같아서 얻은 이름이다. 특히 국산의 경우 삼(參)이라 하지 않고 삼(蔘)자를 사용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

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성(性)은 미온(微溫)하고 미(味)는 감미고(甘微苦)한 약성(藥性)으로 비(脾), 폐(肺), 심경(心經)에 귀경(歸經)한다.

대보원기(大補元氣), 고탈생진(固脫生津), 안신(安神)의 효능으로 노상허손(勞傷虛損), 식소(食少), 권태(倦怠), 반위토식(反胃吐食), 대변활설(大便滑泄), 허해천축(虛咳喘促), 자한폭탈(自汗暴脫), 경계(驚悸), 건망(健忘), 현운(眩暈), 두통, 양위(陽痿), 빈뇨(頻尿), 소갈(消渴), 부녀붕루(婦女崩漏), 소아만경(小兒慢驚), 구허불복(久虛不復), 일체기혈진액부족(一切氣血津液不足)에 사용되는 한약재이다.

임상에서 주로 비폐기허(脾肺氣虛) 또는 기혈양허지증(氣血兩虛之

症)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대병(大病), 구병(久病) 후에 원기가 크게 상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원기허극욕탈(元氣虛極欲脫), 맥미욕절지후(脈微欲絕之候)에 있어서 인삼은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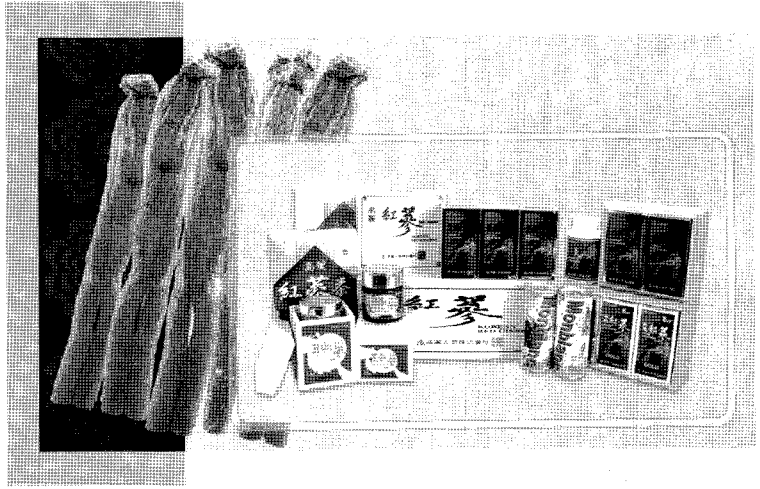
그 외에 열병기진양상(熱病氣津兩傷) 및 소갈이나 기혈이 허약하여 나타난 심신불안, 경계실안(驚悸失眠), 건망 등의 증상에도 역시 상용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허로 내상(虛勞內傷)을 치료하는 첫 번째 요약(要藥)이다' 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주산지인 중부지방인 경기도의 강화, 포천과 충청도의 금산, 옥천, 영동 및 경북의 풍기, 영주 등이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재배하고 있다.

인삼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전세계 인삼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국제시장 유통량 중 약 6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인삼가격은 우리나라 인삼가격보다 몇 배나 낮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인삼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가에서 오랫동안 관리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자국산 인삼의 품질을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삼은 야생으로 오래된 것을 효능이 아주 좋은 상품으로 여기며 재



배한 것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재배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의 영.정조 때부터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재배했다는 설도 있다.

중국에서는 청대 중기 이전의 인삼은 모두 야생이었다. 그 후 자원이 계속 파괴되자 야생 인삼은 거의 없어졌다. 송대(宋代)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발해 시기에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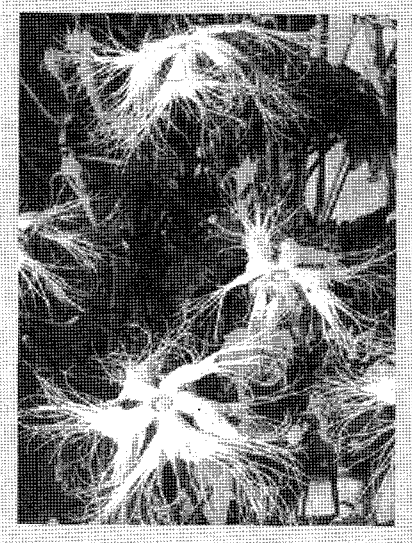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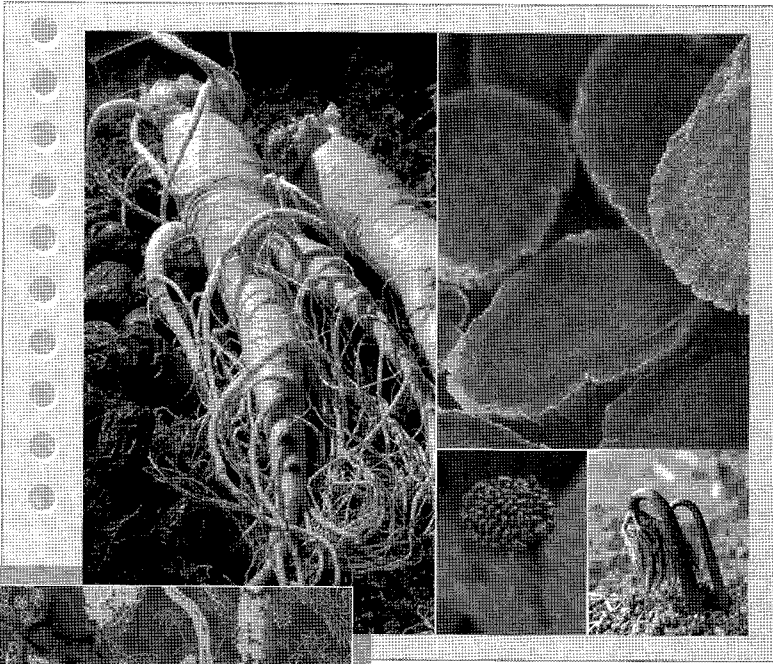
을 진품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인삼은 발해 귀족 자신이 사용하거나 예품으로 바치는데 사용되었다. 다만 채취량이 많지 않아 야생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였다.

그후 금(金), 명(明)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인삼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되었으나 야생 인삼에 대한 보호는 없었다. 그러므로 자원이 점점 감소되면서 청대 이후에는 인삼의 채취를 관리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의식적으로 야생인삼 자원의 채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이것이 중국 한약재 보호관리의 시작이 되었다.

청대는 야생인삼 자원관리가 가장 엄격한 시기로 정부는 개인이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인삼의 값이 높으므로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인삼을 채취하는 일은 금지시켜도 그치지 않았다. 청대



말기에 금지가 풀리면서 야생인삼 자원은 더욱 고갈되었고 민국(民國) 후기에 야생인삼은 이미 드물게 되었다.

신중국이 건립된 후에 야생약재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생태평형의 파괴로 야생인삼 자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야생인삼은 보기가 매우 어렵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장뇌(藏腦), 산양삼(山養蔘) 등의 이름으로 야생인삼의 씨앗을 깊은 산 속에 뿌려 재배한 후에 아주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역 특산으로 그 재배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채취된 야생인삼을 국내에서 채취된 인삼으로 둔갑시켜 아주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현대의학이 유전자 치료로 대변되는 맞춤 의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지금에도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한의학의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인정된 범위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2. 한의학에서 인삼의 응용역사

기원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현재는 두릅나무과 Araliaceae 다년생 초본식물인 인삼의 뿌리를 기원으로 쓴다. 인삼의 대용품이나 위품(僞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는 만삼의 뿌리를 건조한 당삼(黨蔘)과 개별꽃의 뿌리를 건조한 태자삼, 도라지의 뿌리를 건조한 고경(桔梗) 등이 있다.

(1) 한대(漢代)

한대에서부터 인삼이 임상에서 상용되었으며 의사들은 이미 인삼에 대해 비교적 깊은 이해가 있었다.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에서 인삼이 사용된 처방은 36개에 달한다. ‘상한론’에서는 우선 생진지갈(生津止渴)하는 데에 쓰였는데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 같은 것으로 백호탕증(白虎湯證)에 진액(津液)이 대상하여 구갈(口渴)이 비교적 심하고 기음양상(氣陰兩傷), 구설건조자(口舌乾燥者)에 적용하였다.

구갈(口渴)은 열상기진(熱傷氣

津)한 것으로 진상(津傷)하여 갈(渴)하고 기상(氣傷)하여 진액(津液)이 불포(不布)하므로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인삼은 생진지갈(生津止渴)하고 익기(益氣)하여 기왕진생(氣旺津生)하므로 진액이 정상적으로 수포(輸布)되어 구갈(口渴)이 없어진다.

또한 사역가(四逆加) 인삼탕은 사역(四逆)의 오한맥미이복리(惡寒脈微而復利), 리지(利止)하는 것을 치료한다. 설사가 그치는 것은 음액(陰液)이 내갈(內竭)되었기 때문이므로 인삼을 가(加)하여 구음(救陰)하는 뜻이다.

인삼의 다른 작용은 익기(益氣)하여 보허(補虛)하는 것이다. 예로 '금궤요략(金匱要略)'의 인삼탕은 인삼, 백출(白朮) 각 9g, 건강(乾薑), 구감초(炙甘草) 각 6g을 수전(水煎)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으로 중기(中氣) 부족으로 인한 흉비(胸痺)를 치료하는데 흉민(胸悶), 흉통(胸痛), 권태핍력(倦怠乏力) 등과 같은 증상이다.

이는 기허혈어(氣虛血瘀)에 속하는 것으로 익기법(益氣法)으로 흉비(胸痺)를 치료하는 선례이다. 다른 처방으로 리중환(理中丸)이 있다.

②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

임상응용된 것으로 '주후비급방(肘後備急方)'의 갈씨치졸건구불식방(葛氏治卒乾嘔不息方)은 인

삼, 감초 각 9g, 생건 18g을 수전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는데 여기사 건구불식(乾嘔不息)은 곧 비위허한(脾胃虛寒)하기 때문이다.

처방에서 인삼은 보허하고 감초는 화중(和中)하고 생강은 온중지구(溫中止嘔)하며 함께 사용하면 보허온중지구(補虛溫中止嘔)의 효능이 있다. 이는 '상한론(傷寒論)'의



인삼은 주로 한국과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전세계 인삼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국제시장 유통량 중 약 6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인삼가격은 우리나라 인삼가격보다 몇 배나 낮게 유통되고 있다



오수유탕(吳茱萸湯)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 외에 '주후비급방' 중에 치졸상기천식옥절방(治卒上氣喘息欲絕方)은 인삼의 단미만을 가루내어 1g 정도를 하루에 5~6번 복용하는데 천식옥절(喘息欲絕)은 대개 대한림리(大汗淋漓)가 있으니 이는 원기가 탈(脫)하려는 위급한 증후(證候)이다.

처방에서 인삼만을 사용하여 대보원기(大補元氣)하며 고탈(固脫)한다. 이는 '독삼산(獨參散)'이라고도 하는데 후세의 독삼탕(獨參湯)의 원형이고 인삼을 구급(救急)에 사용한 효시가 되었다.

그 외에 최초의 외과 전문서인 '유연자귀유방(劉涓子鬼遺方)'에서 인삼을 외과 창양(瘡瘍)에 사용하여 용저(癰疽) 기혈부족을 치료하였다.

예를들면 황기탕(黃芪湯)은 황기(黃芪) 15g, 인삼, 당귀(當歸), 건지황(乾地黃), 복령(茯苓), 백출(白朮) 각 9g, 원지(遠志), 적감초(炙甘草), 생강 각 6g, 대조(大棗) 5개를 수전하여 2번으로 나누어 복용하여 용저내허(癰疽內虛)를 치료한다.

처방중의 황기(黃芪)는 '창가성약(瘡家聖藥)'으로 칭하여지고 인삼과 상수(相須)로 함께 사용하면 보기탁창생기(補氣托瘡生肌)의 효능이 있으며 당귀, 지황(地黃) 등을 배오(配伍)하여 양음보혈(養陰補血)하므로 용저기혈부족내허(癰疽氣血不足內虛)에 적합하다.

이밖에도 차옹내보(治癰內補)하는 황기탕, 발배(發背)와 발유(發乳)를 치료하는 겸미죽엽탕(兼味竹葉湯) 등이 있으며 처방중에 인삼은 역시 익기생혈(益氣生血), 보허탁창(補虛托瘡)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외과에서 창양내탁법(瘡瘍內托法)의 선례가 되었다. ●